

사진으로 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사

The History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s Seen through Photos

어제까지 오늘부터

Until Yesterday, From Today

어제까지, 오늘부터

Until Yesterday, From Today



어제까지, 오늘부터

Until Yesterday, From Today

“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
—「유네스코헌장」 전문(前文)—

“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
—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of UNESCO —



사진으로 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사 “어제까지, 오늘부터”

1950년 6월 14일 한국은 세계에서 55번째로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직후 한국전쟁이 발발했지만 정부는 전란 속에서도 한국의 유네스코 활동 전개를 위한 국가위원회 설치를 추진했고 마침내 1954년 1월 30일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가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2020년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앞두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전쟁이 남긴 상흔에 아파하는 전후 세대, 배움에 목말라한 산업화 세대, 역동적인 젊음을 발산했던 민주화 세대,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 세대까지 “인간의 마음에 평화의 방벽을 세우자”는 기치 아래 국내외에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해 온 모든 이들의 어제, 그리고 오늘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을 펴냅니다. 그동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의 종착점인 동시에, 내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 사진집을 펴내며 어제의 기억을 밑거름으로 오늘의 모습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격에 맞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로서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과학·문화를 통한 평화와 지속가능발전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이같은 노력에 여러분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 광 호**

1 1950년대 한국 교육 현장의 모습 (유네스코본부 소장, 1952)
2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짐바브웨 지역학습센터 (2013)



-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총회 전경 (1954)
- 2 존 콜터 운크라 단장 축사 모습 (1954)
- 3 김법린 초대 위원장 개회 선언 모습 (1954)
- 4 창립총회가 열린 서울대학교 건물의 당시 모습 (195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총회 (1954)

Inaugural Meeting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54)

1953년 7월 대통령령 제801호 '한국유네스코위원회 설치령'이 공표되었고, 1954년 1월 30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활동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당시 국내 교육, 과학, 문화계를 대표하는 60인의 전문가가 초대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초대 위원장에는 김법린 당시 문교부장관, 초대 사무총장에는 정대위 박사가 임명되었다.

국정교과서 인쇄공장 (1954)

National Textbook Printing Plant (1954)

한국전쟁 직후 교육재건 원조의 일환으로, 유네스코가 10만 달러, 유엔한국재건단 (UNKRA)이 14만 달러를 지원해 1954년 대한문교서적(후 국정교과서) 인쇄공장이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전란의 폐허 속에서도 국내 초등학생들에게 교과서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었다.



- 1 현재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에 전시 중인 국정교과서 (2014)
- 2 국정교과서 인쇄공장 운전기 가동 모습 (1954)
- 3 국정교과서로 공부 중인 군포초등학교 학생 모습 (1969)
- 4 국정교과서 인쇄공장 건물(서울 영등포) (1954)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1954-1956)

UNESCO Students Work Camp for Post-war Rural Rehabilitation (1954-1956)

1954년부터 195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352명의 대학생이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강원도 연천, 화천, 양평 등 수복지구와 서울 교외 지역을 방문해 아동교육, 의료, 영농지도, 건설 활동에 참여하면서 유네스코 모범촌을 건설하는 데 기여했다.

- 1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제1차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대원 (1954)
- 2 치과 의료 활동 중인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대원들 (1954)
- 3 어린이들에게 이발을 해주고 있는 유네스코 학생건설대 대원들 (1954)





- 1 신생활교육원 청사 준공식 (1956)
- 2 신생활교육원에서 수업 중인 모습 (1956)
- 3,4 신생활교육원에서 실습 중인 학생들 (1956)
- 5 신생활교육원 설립 1주년 기념식 (1957)



신생활교육원 (1956)

Korean Fundamental Education Centre (1956)

전후 한국의 재건 지원방안을 조사한 유네스코-윌크라 교육사절단의 건의에 따라, 1956년 수원에 신생활교육원을 설립했다. 신생활교육원은 한국의 농촌 지도자 양성을 비롯해 농촌 지역사회 개발에 크게 이바지했다.

유네스코 도서 기증 (1955)

International Donation of Books for Educational Reconstruction in Korea (1955)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도서관을 복구·확충하고자, 유네스코를 통해 국내 19개 대학교 도서관에 도서 및 출판물들을 전달했다. 이들 출판물은 미국의 스미소니언 연구소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인도네시아, 영국 등 세계 각지로부터 기증받은 것이었다.

- 1 기증받은 도서를 보며 기뻐하는 대학생들 (1955)
- 2 기증도서 전달식 (1955)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는 한국외국어학원 칼 림바허 초대원장

한국외국어학원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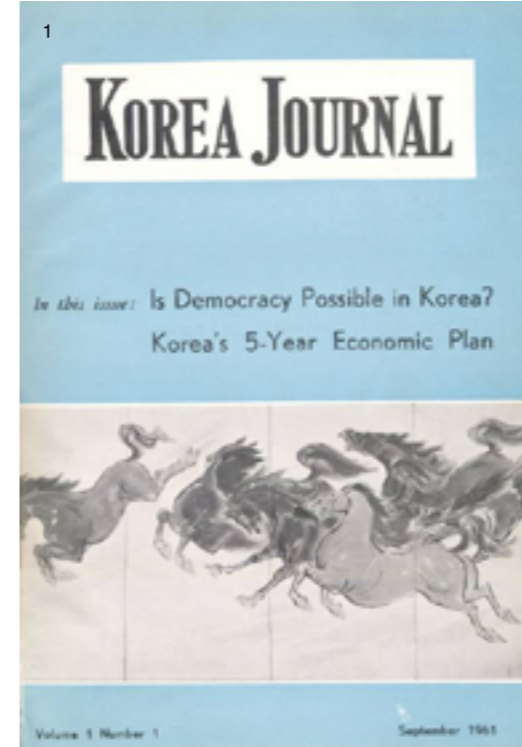
Korean Foreign Language Institute (1957)

유네스코는 국내 외국어교육 지원을 위해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1957년 서울대학교 안에 한국외국어학원을 개원했다. 해외 유학을 희망하는 한국인의 어학훈련을 전담한 한국외국어학원은 한국의 국제사회 참여를 위한 인재양성의 산실 역할을 했다.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ASPnet, 1961-)

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ASPnet, 1961-)

한국의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ASPnet) 참여는 1960년 제1차 유네스코 전국 연구대회 결의에 따라, 이듬해 4개교가 ASPnet에 가입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ASPnet 활동은 한국 국제이해교육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11월 현재 전국에서 611개교가 ASPnet에 가입해 학교 현장에서 국제이해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벌이고 있다.



- 1 국제이해교육 연구협의회 (1970)
- 2 유네스코 전국 연구대회 (1960)
- 3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 아시아 회의 (1971)



- 1 『Korea Journal』 창간호 (1961)
- 2 『Korea Journal』 10주년 기념식 (1971)
- 3 『Korea Journal』 창간 50주년 학술 심포지엄 (2011)



『Korea Journal』 (1961-)

Korea Journal (1961-)

1961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여전히 ‘은둔의 나라’로만 인식되던 한국을 해외에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영문 한국학 잡지 『Korea Journal』(코리아저널)을 창간했다. 창간 초기에는 당시 한국사회 현안이었던 경제개발과 민주주의를 비롯해 한국의 전통문화 등 다채로운 한국의 면모를 소개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지만,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한국학 국제 학술지로 성격을 전환했다. 현재는 전 세계 한국학 학자들 간 소통과 학술 교류의 장으로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로 꼽히고 있다.



유네스코 쿠폰 가입 (1961)

Korea joins the UNESCO Coupon Scheme (1961)

유네스코 쿠폰은 외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나라에서 자국 화폐로 외국의 서적과 과학기자재를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제 이해 및 교류의 차원에서 유네스코가 창안한 국제통화였다. 한국은 1961년 이 제도에 가입해 1980년대까지 국가발전의 매개체로 유네스코 쿠폰을 활발히 활용했다. 90년대 이후에는 경제 성장과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그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었다.



제12차 유네스코 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 (1962)

Korean Delegation to the 12th UNESCO General Conference (1962)

1962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12차 유네스코 총회에는 김활란, 윤일선, 조민하, 정대위, 정일영이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했다.

김활란, 윤일선, 조민하, 정대위(사진 왼쪽부터) (1962)

인하공대 부설 중앙직업기술학교 (1962)

Vocational & Technical Education Centre of the Inha Institute of Technology (1962)

1961년 유네스코-우크라이나로부터 50만 달러의 원조를 받아 1962년 인하공대 내에 중앙직업기술학교가 설치되었다. 유네스코가 파견한 기술전문가가 이 곳에서 진행한 교육은 한국 직업기술교육 활동의 효시가 되었다.



- 1 인하공대부설 중앙직업기술학교 전경 (1964)
- 2 영국에서 온 유네스코 소속 전문가 J. 카르로부터 전기자재 사용 설명을 듣고 있는 교육생들 (1964)
- 3 영국에서 온 유네스코 소속 전문가 A. 코킹으로부터 전기자재 사용 설명을 듣고 있는 교육생들 (1964)



- 1 유네스코 창립 20주년 기념 유네스코세계근대미술전 현수막 (1966)
- 2 유네스코세계근대미술전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 (1966)

세계명화 순회전 (1955-1966)

The UNESCO Traveling Art Exhibition (1955-1966)

국내에서 해외 문화를 접할 기회가 드물었던 1950-60년대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계적 수준의 미술작품의 복제품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전시하는 세계명화 순회전을 개최했다. 비록 복제품이기는 해도, 교과서의 흑백 사진으로나 볼 수 있었던 다빈치, 고흐, 피카소의 유명 작품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큰 관심을 갖고 전시장을 찾았다.

제주도 문해교육사업 (1965)

Literacy Education Project in Jeju Island (1965)

제주도 문해교육사업은 유네스코 본부의 지원을 받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1965년 제주도 전역에서 실시한 문해교육사업이었다. 지도요원만 101명이 참가한 이 사업을 통해 미취학 아동부터 청·장년층에 이르는 3,318명의 비문해자들이 약 3개월 간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 1 한글교실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어머니들과 엄마를 따라나온 어린이 (1965)
- 2 한글교실에서 배움에 열중하고 있는 어머니들 (1965)
- 3 받아쓰기하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 (1965)



- 1 정밀기기센터에서 버블 제조장치를 시연하는 모습 (1966)
- 2 정밀기기센터에서 오실리스코프를 시연하는 모습 (1966)
- 3 정밀기기센터 중앙 출입구 (1966)



한국정밀기기센터 (1966)

Fine Instrument Centre (1966)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1966년 구로공단 내에 한국정밀기기센터가 준공되어 국내 정밀기기 분야와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유네스코학생회 (KUSA, 1965-)

Korean UNESCO Student Association (KUSA, 1965-)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학생활동과 국제활동을 지원하고자 1965년에 국내 대학 학생회 임원들과 대학신문 기자들을 초청하여 유네스코 하계학교를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국 13개 대학에 유네스코학생회(KUSA)가 조직되었다. 이후 KUSA는 대학생 연합 봉사활동, 조국순례대행진, '자각적 탐구와 실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새물결운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운동의 새 장을 열었다.

1 박정희 전 대통령, 유네스코학생회 대표 및 지도교수 접견 (1968)

2 제11기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 (1970)

3 유네스코 연합 봉사대의 학교 봉사 모습 (1970)





1 쿠로시오 조사를 위한 해양과학 심포지엄 현장 방문 (1968)
 2 한국해양학회 창립총회 (1966)
 3 한국해양학회 창립총회 참석자 단체사진 (1966)



국제야영봉사 (IWC, 1966-2010)

International Work Camp (IWC, 1966-2010)

‘국제야영봉사’(International Work Camp, IWC)는 청소년 국제 교류를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1966년부터 개최해온 대표적인 청소년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내외 환경 변화와 국제교류 확대 등에 따라 사업 명칭과 내용도 차츰 변모해, 1979년부터는 ‘국제청년야영’(International Youth Camp, IYC), 2009년부터는 ‘청년지역행동’(Youth in Community Action), 2011년부터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International Work Camp)라는 명칭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에 종료되었다.

1 제4차 국제야영봉사 (1969)
 2 제5차 국제야영봉사 (1970)
 3 제16차 국제야영봉사 (1981)



한국해양학회 창립총회 (1966)

Inaugural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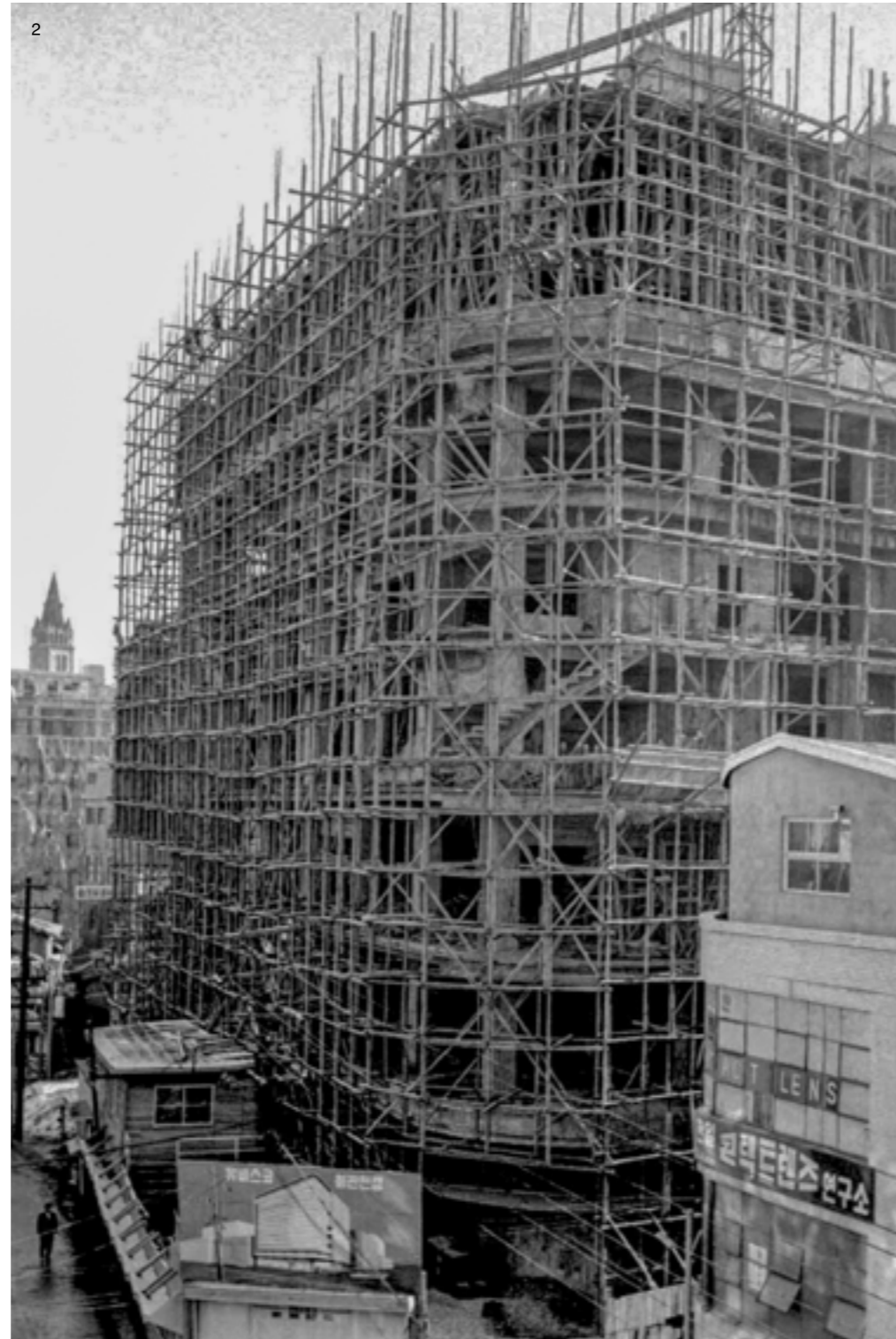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산하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 해양과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양과학 분야 전문가 및 연구자, 정부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국해양과학위원회를 1961년에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이후 1966년 한국해양학회 창립에 있어 산파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한국해양과학위원회 및 한국해양학회는 1965년부터 1971년까지 유네스코 주관으로 이루어진 국제 쿠로시오 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한국 해양학 발전의 초석을 쌓았다.



2



- 1 유네스코회관 기공식 (1959)
- 2 건축 중인 유네스코회관 (1961)
- 3 유네스코회관 준공식 건물 외부 모습 (1967)
- 4 유네스코회관 준공식 건물 정문 모습 (1967)
- 5 유네스코회관 준공식 (1967)



유네스코회관 건립 (1959-1967)

Construction of the Korean UNESCO House (1959-1967)

1959년 기공식 이후 8년에 걸친 공사 끝에 1967년에 대지 1.252㎡, 연면적 14.841㎡, 지하1층, 지상 11층의 유네스코회관이 완공되었다. 유네스코회관은 완공 이후 지금까지 서울의 중심지인 명동의 대표적 명소로서, 한국 유네스코 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조국순례대행진 (1974-1993)

Pan-National Student March (1974-1993)

1974년 전국의 대학생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주간의 조국순례대행진이 그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발로 누비며 국토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된 이 대장정에는 유네스코학생회(KUSA)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1 제1회 조국순례대행진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는 김종필 당시 총리, 민관식 문교부장관, 김규택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앞줄 왼쪽부터, 1974)

2 제1회 조국순례대행진 (1974)

3 제1회 조국순례대행진 야영 모습 (1974)

4 제1회 조국순례대행진 (1974)





유네스코 평화센터 (1977-)

Korean UNESCO Peace Centre (1977-)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77년, 경기도 이천에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네스코 청년원을 개원했다. 이 곳은 유네스코학생회(KUSA) 활동, 국제청년야영(IYC), 청년해외봉사단, 국제자원활동 등 다양한 국제 청소년 활동의 요람이 되어 왔다. 2001년에는 유네스코 문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06년부터는 유네스코 평화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 1 유네스코 청년원 부지조성공사 착공 (1974)
- 2 건축 중인 유네스코 청년원 (1976)
- 3 유네스코 평화센터 전경 (2016)

MAB한국위원회(1980-)

MAB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1980-)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의 대표적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의 국내 추진을 위해 1980년에 MAB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MAB한국위원회는 한국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사업을 비롯해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 설립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10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 1 인간과 생물권 계획 세미나 (1977)
- 2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내 워크숍 (1983)



한국유네스코협회 (1965-)

Korean UNESCO Clubs and Associations (1965-)

지역사회 내 민간 유네스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1965년에 지방협회가 설립되기 시작했고, 1982년에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이 탄생했다. 현재 협회연맹 산하 23개의 지방협회가 유네스코학교, 청년협회 등 각종 유관단체와 협력해 유네스코 이념 보급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1

- 1 한국해외청년봉사단 제2기 발단식 (1991)
- 2 제1기 네팔 파견단원의 어린이 진료 현장 (1990)
- 3 제2기 스리랑카 파견단원의 미용 분야 직업기술교육 (1991)



2



1



3

- 1 제3회 유네스코 민간활동 전국연수회 (1970)
- 2 유네스코 학생 야영대회에서 강의하고 있는 조중훈 협회연맹 초대 회장 (1987)
- 3 제11차 아시아유네스코협회연맹 총회 (서울, 1995)

한국청년해외봉사단 (1990-)

Korea Youth Volunteers (1990-)

1989년 청년봉사단의 해외파견을 정부에 건의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0년 10월 수입기관으로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제1차 단원 48명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4개국에 파견했다. 이들은 의료, 직업교육,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 사업은 1991년 정부정책에 따라 신설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이관되어, 'KOICA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3



1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
2 종묘 세계유산기념비 제막식 (1995)

종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995)
Jongmyo Shrine inscribed on the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List (1995)

종묘는 1995년 석굴암, 불국사, 창덕궁과 함께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CCAP, 1998-)
Cross-Cultural Awareness Programme (CCAP, 1998-)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초중고교를 방문해 자국의 문화와 역사, 생활과 풍습을 소개하는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에 3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된 후 이듬해부터 대상 학교 수를 늘려 연간 90여 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 수는 30,000명이 넘는다. 2013년부터는 유네스코협회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다.

1 러시아 선생님과 함께한 CCAP수업 (2005)
2 2009 CCAP 1차 갯투게더 (2009)
3 카메룬 선생님과 함께한 CCAP수업 (2009)



국제자원활동 (1998-2016)

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s (1998-2016)

한국의 청년들을 세계 각지의 단기 워크캠프와 중장기 자원활동에 파견해, 환경, 평화, 문화유산,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현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40여 개국에 3,000명 이상의 청년을 파견했고, 2016년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 1 국제자원활동 공개 설명회 (1999)
- 2 국제자원활동 훈련 워크숍 참가자 단체 사진 (1999)
- 3 프랑스에서 진행한 국제자원활동 모습 (2001)



- 1 한국어교실 수료증 수여식 (1999)
- 2 KUCES 바자회 (2000)
- 3 유네스코 페스티벌 (2001)

한국유네스코문화교류센터 (KUCES, 1997-2003)

Korea UNESCO Cultural Exchange Services (KUCES, 1997-2003)

한국유네스코문화교류센터는 1990년대 급격히 진행된 한국의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해 주한외국인과 한국사회를 잇는 문화교류의 창구로서 개설되었다. 2003년까지 한국어교실을 비롯해 한국문화 강좌, 한국문화체험, 국제이해 학술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들이 이 센터에서 실시되었다.



1 합의회의에서 발언 중인 시민패널 (1999)
 2 합의회의 최종보고서를 낭독하고 있는 시민패널 (1999)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1999)

Consensus Conference on Cloning (1999)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전문가 패널과 시민 패널의 적극적인 토론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합의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과학기술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한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2



3



1 개원기념 국제 심포지엄 (2000)
 2 개원기념 국제 심포지엄 (2000)
 3 설립 협정문 체결 (2000)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APCEIU, 2000-)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2000-)

유네스코 아태지역 회원국 47개국과 함께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념 아래 국제이해교육을 증진·발전시키고자,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에 의해 국내 첫 유네스코 카테고리 II 기관인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 설립되었다.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1999-2000)

One Million Signature Campaign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1999-2000)

2000년 '세계 평화의 문화 해'를 맞아 유엔과 유네스코는 1999년 '평화의 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을 선포하고 전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8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내에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161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했다.

- 1 피켓을 들고 서명 동참에 호소하는 참가자들 (1999)
- 2 출범식 (1999)
- 3 명동거리를 지나가는 시민에게 서명을 부탁하는 모습 (1999)
- 4 <평화의 문화 선언 2000>을 낭독하는 참가자 (1999)



- 1 마이클잭슨의 자선공연 수익금을 교육기금에 기증하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 (1999)
- 2 교육기금 전달식 (2000)
- 3 교육기금을 지원 받은 동티모르 소모초 마을의 어린이들 (2007)
- 4 교육기금을 지원받은 라오스 푸딘댕 청소년센터 어린이들 (2006)



삼성-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기금 (2000-)

Samsung-KNCU Education Fund (2000-)

1999년 유네스코와 적십자사 등 국제기구의 후원으로 불우아동을 돕기 위한 마이클잭슨 자선공연이 열렸다. 이 때 공연수익 및 국민모금으로 마련된 자선기금 4억원과 삼성전자가 기부한 6억원을 합해 2000년 '삼성-유네스코 교육기금' 10억원이 조성되었다. 이 기금은 이후 10년간 40여 개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는 데 활용되었다.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미지센터, 2000-2012)

Seoul Youth Cultural Exchange Center (MIZY, 2000-2012)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는 2000년에 설립된 청소년들의 전용 문화공간 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2012년까지 운영했다. 대표적 사업으로, 운동화에 세계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려 넣어 해외 저개발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희망의 운동화 나눔축제'를 벌인 바 있다.



- 1 한·독 청소년 포럼 (2003)
- 2 제3회 서울·오키나와·도쿄 청소년 영상 평화토론회 (2002)
- 3 우간다 희망의 운동화 나눔축제 전달식 (2008)



- 1 조수미 평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음악교실 (2004, 경기도 수원)
- 2 대한민국 어린이 공연 모습 (2005, 마카오)
- 3 북한어린이들과 기념 촬영 (2005, 마카오)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제 (CPAF, 2001-2012)

UNESCO Children's Performing Arts Festival of East Asia (CPAF, 2001-2012)

유네스코는 공연예술을 통한 동아시아 어린이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켜 평화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동아시아 어린이 공연예술제를 개최했다. 매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5개국이 돌아가며 이 행사를 개최했으며, 한국은 수원(2004년)과 광주(2008년)에서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1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세종문해상 시상식 (2009)
 2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발표하고 있는 수상자 (2012)
 3 한글날 행사에 참석한 세종문해상 수상자들 (2011)



1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중 문화수업중인 선생님 (2014)
 2 일본교직원 한국 방문 프로그램 포럼 (2011)
 3 한국교직원 일본 방문 프로그램 단체사진 (2001)



한일교사대화 (2001-)
 Korea-Japan Teachers' Dialogue on ESD (2001-)

한일교사대화 프로그램은 한일 교사 간 대화와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양국의 교육현안을 이해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교육 이념을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1년 한국 교사 50명이 일본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 교사 2,100여 명이, 일본 교사는 2005년 20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50여 명이 참가했다.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1989~)
 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 (1989~)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은 1989년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으로 유네스코가 제정한 상으로 해마다 개도국 문해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종문해상 제정 20주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세종 문해상 수상자 한국 초청사업을 담당한 바 있다.



월드컵 라운드테이블 (2002)
World Cup Roundtable (2002)

2002년 한국-일본 월드컵 개최를 기념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아시아유럽재단과 함께 월드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문화와 민족 간 이해 증진을 주제로 국가와 국제기구의 역할, 문화간 이해에 스포츠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호주 지구촌이해 영어교사 연수 (2003-2012)

Korea-Australia Teachers' Camp for Global Understanding (2003-2012)

한국-호주 교사 간 영어 교수 능력 향상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간 '한국-호주 지구촌 이해 영어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매년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910명, 남호주교육청 교사 152명이 연수에 참가했다.



- 1 호주 영어교사들의 붓글씨 체험 (2007)
- 2 호주 영어교사들의 한국문화 체험 (2007)
- 3 호주 영어교사의 호주 문화 이해 수업 장면 (2005)



옥상생태공원 '작은누리' (2003-)

Rooftop Eco-Park 'Jageun Nuri' (2003-)

2003년 유네스코회관 옥상에 200여 종의 풀과 나무, 습지로 이루어진 생태공원 '작은누리'를 조성했다. 작은누리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유네스코 이념을 담고 있으며, 도심 속 생태계 보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 1 작은누리에서 체험활동 중인 학생들 (2003)
- 2 도시양봉 채밀행사 체험활동 중인 학생들 (2016)
- 3 작은누리 봄 풍경 (2016)
- 4 작은누리 여름 풍경 (2016)
- 5 작은누리 가을 풍경 (2016)
- 6 작은누리 설경 (2015)





UNU-KNCU 글로벌 세미나 (2003-2011)

UN University-KNCU Global Seminar (2003-2011)

평화, 인권, 환경, 빈곤퇴치 등 국제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엔대학과 공동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글로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의 대학(원)생들이 이 세미나에 참가해 국내외 학자들의 강연을 듣고, 모의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국제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했다.

- 1 분임토론 전경 (2011)
- 2 개회식 (2004)
- 3 필드트립 (2006)
- 4 조별 발표 (2006)



- 1 2013년 수상자인 멕시코 기록보관소 아다비 (2013)
- 2 2005년 수상자인 체코 국립 도서관 (2005)



유네스코 직지상 (2005-)

UNESCO JIKJI Prize (2005-)

2004년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정된 유네스코 직지상은 기록유산의 보존 가치 활용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격년으로 시상하고 있다.

북한 교과서 인쇄기 및 용지 지원 (2002-2009)

Donation of Textbook Printing Machine and Papers for North Korean Students (2002-2009)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에 교과서 용지 850톤을 지원했고, 2005년에는 교과서 인쇄용 운전기를 기증했다. 인쇄기 및 용지 기증은 1950년대 한국이 유네스코와 유크로부터 받은 인쇄공장 건립 지원을 재개발국인 북한에 되돌려 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 1 북한 교과서 인쇄용지 선척하고 있는 인천항 (2009)
- 2 인쇄용 운전기가 설치된 북한 인쇄소 모습 (2007)
- 3 북한 학생들의 수업 모습 (2007)



- 1 이천영어마을 개원 (2008)
- 2 이천영어마을 수업 장면 (2017)
- 3 이천영어마을 수업 장면 (2017)



이천영어마을(지구촌평화마을) (2008-)

Icheon Global Peace Village (2008-)

2008년에 유네스코 평화센터 내에 이천영어마을(지구촌평화마을)을 개원, 체험식 영어교육과 더불어 문화와 환경, 평화를 주제로 어린이 영어캠프를 진행해 오고 있다.



1 카리브지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워크숍 (2015, 자메이카)
 2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아태지역 훈련워크숍 (2009)
 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 역량강화 워크숍 (201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워크숍 (2009-)
 UNESCO Memory of the World Training Workshop (200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량강화 워크숍’은 우리나라의 주도로 기록유산 보존과 등재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대륙별로 순회하며 추진해온 사업으로, 2018년에는 10주년을 기념하여 공여국(供與國)인 우리나라에서 열렸다.



유네스코 길 명명식 (2010)
 Naming Ceremony of UNESCO Road (2010)

2010년 한국 유네스코 가입 60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회관이 있는 명동길(명동 눈스퀘어-명동 가톨릭회관, 폭 15m, 길이 533m)을 ‘유네스코길’ (명예도로)로 지정하고 동판을 설치했다. 유네스코 길은 국내에서 유네스코 이름이 들어간 최초의 도로이다.

유네스코 길 명명식에 참석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내빈들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2010-)

Rainbow Global Citizenship Project for Youth (2010-)

청소년은 지구촌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중요한 파트너이자 가장 창의적인 주체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0년 '유엔 세계 청소년의 해'를 기념해, 학생들이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 등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선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레인보우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유네스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펼친 세계 빈곤퇴치의 날 캠페인 (2010)



- 1 제7차 모의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 (2012)
- 2 제1차 모의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 (2010)
- 3 2016 모의 유네스코 총회 (2016)

모의 유네스코 총회 (MUC, 2010-2016)

Model UNESCO Conference (2010-2016)

모의 유네스코 총회(MUC)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국제사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다른 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었다.



1 2018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2018)
 2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업무 협약식 (2016)
 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컨퍼런스 서울 (2011)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2010-)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2010-)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도시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살려냄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간 글로벌 네트워크다. 국내 도시로는 광주(미디어아트), 대구(음악), 부산(영화), 부천(문학), 서울(디자인), 이천(공예), 전주(음식), 통영(음악)이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



유네스코 DMZ 국제 영상캠프 (2010-2012)

KNCU International DMZ Film Camp (2010-2012)

한반도 분단체제의 상징인 DMZ는 6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서 자연생태계가 보존된 특별한 지역이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외 청년들에게 DMZ를 통해 평화와 발전이라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알리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유네스코 DMZ 국제영상캠프'를 개최했다. 이 캠프에 참가한 청년들은 스스로 평화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영상을 제작했다.



국제워크캠프 (2011-2016)

International Workcamp (2011-2016)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인류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청년의 국제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청년 및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국제워크캠프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교류, 자원활동, 환경보호 등 다양한 주제로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진행했다.

- 1 부산 워크캠프 (2011)
- 2 울진 워크캠프 (2011)
- 3 제주 워크캠프 (2012)
- 4 부산 워크캠프 (2012)
- 5 부산 워크캠프 (2012)
- 6 제주 워크캠프 (2015)





- 1 제1회 세계 인문학 포럼 중 르 클레지오의 기초강연 (2011)
- 2 제1회 세계 인문학 포럼 기간 중 열린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2011)
- 3 제2회 세계 인문학 포럼 (2012)



세계 인문학 포럼 (2011-)

World Humanities Forum (2011-)

세계인문학포럼은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성찰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유네스코가 우리나라 교육부와 공동으로 개최해 온 세계 포럼이다. 세계적인 인문학 석학들의 강연과 토론이 벌어지며 문학과 각종 문화행사와 이벤트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면서 세계 인문학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12년까지 이 포럼을 주관했으며, 2013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다.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역량강화 사업 (2011-)

Capacity Building for National Commissions (2011-)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유네스코국가위원회의 인적,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는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역량강화 사업을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1 2017 유네스코 아태지역 국가위원회 직원 훈련워크숍 (2011)
- 2 2011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태지역 국가위 및 한위 직원들 (2011)
- 3 동티모르 현장모니터링 (2011)



- 1 네팔 지역 프로젝트 (2012)
- 2 라오스 지역 프로젝트 (2012)
- 3 프로젝트 참가자 초청 워크숍 (2012)



유네스코 브릿지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 (2011-)

KNCU Bridge Climate Change Education Project (2011-)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아시아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RICE)는 2011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협력해 6개국 30개 기후변화교육 모델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유네스코 브릿지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2010-)

KNCU Bridge Africa Project (2010-)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문맹률이 높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잠비아 등 아프리카의 교육 소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마다 지역학습센터를 만들고 어린이와 교육의 기회를 놓친 학업중단 청소년 및 성인문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문해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1 제1기 박선희 활동가 잠비아 활동 모습 (2011)
- 2 레소토 하무추 현대그린푸드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 (2016)
- 3 레소토 하무추 직업교육 중인 학생들 (2017)
- 4 말라위 나피니 지역학습센터의 교사와 학생들 (2016)





1 스리랑카 지역 프로젝트 (2015)
 2 인도 바라나시 지역학습센터에서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출연한 신세경 특별홍보대사 (2016)
 3 파키스탄 지역 프로젝트 리사도서관에서 책임는 학생 (2012)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젝트 (2012-)

KNCU Bridge Asia Project (2012-)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이 글을 쉽게 익혀 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던 세종대왕의 큰 뜻을 오늘에 되살려 아시아 저개발국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본래 '세종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12년부터 파키스탄, 라오스, 동티모르, 필리핀 등에서 실시되었으며, 2014년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젝트'로 재탄생해 사업 범위와 규모를 넓히고 있다.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2011-)

Young Guardians of UNESCO World Heritage (2011-)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프로그램은 매년 국내외 대학생 100 명이 참가해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유산 현장에서 유산 보호와 이해증진,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 김찬 전 문화재청 청장의 축사 (2012)
 2 세계유산 지킴이 단체사진 (2012)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인증 프로젝트 (2011-)

Korea UNESCO ESD Official Project (2011-)

유엔이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을 지정한 가운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국내 인식 및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서 한국위원회는 국내 ESD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해 이를 공식 인증하는 유네스코 ESD 공식 인증 프로젝트를 201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 1 ESD 인증기관인 덕성여대 부속유치원 (2012)
- 2 2015년도 ESD 인증 수여식 및 네트워크 회의
- 3 2012년도 ESD 한마당 분임토의 결과 발표



- 1 위안부 피해자 거주시설 평화의 집 방문한 참가자들 (2013)
- 2 역사교과서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2015)
- 3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참가자들 (2014)

유네스코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청년포럼 (2012-2016)

International Youth Forum on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East Asia (2012-2016)

유네스코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청년포럼은 청년의 시각과 목소리로 동아시아 역사 이해와 화해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된 국제행사다. 이 포럼에는 매년 한·중·일을 포함해 20여 개국에서 온 6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오랜 숙제인 동아시아 역사화해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 1 유네스코 재즈의 날 홍보대사 나윤선 씨의 세계 재즈의 날 기념 공연 (2013)
- 2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에서 펼쳐진 게릴라 재즈 공연 (2013)



세계 재즈의 날 기념 공연 (2013)
 Celebration of International Jazz Day (2013)

2013년 4월 30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재즈의 날'(매년 4월 30일)에 유네스코 세계 재즈의 날 홍보대사인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씨를 비롯한 국내 대표 재즈 연주자들이 '세계 재즈의 날' 축하 기념 공연을 열었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유네스코 대학생 вол런티어 프로젝트 (2013-)
 UNESCO Volunteer Projects (2013-)

유네스코 вол런티어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전세계의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들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친구·동료들과 함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2018년 3기까지 총 76개 팀이 참여했다.



- 1 2016 유네스코 вол런티어 4기 활동보고회
- 2 1기 유네스코 вол런티어 프로젝트 워크숍 (2013)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2013-2017)

UNESCO Kids Programme (2013-2017)

‘유네스코 키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이슈에 관한 교육과 국제기구 견학을 제공해 글로벌 리더의 꿈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 전국 1,150개 학교에서 무려 2,50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유네스코 키즈’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가운데 88명을 선발해 여름캠프를 진행했고, 2014년 2월, 최종 선발된 32명의 학생들이 2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유네스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견학했다. 2017년 제5회 유네스코 키즈 세계시민캠프를 끝으로 이 프로그램은 종료되었다.

- 1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유네스코 키즈와 만나다 (2014)
- 2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방문 (2014)
- 3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방문 (2015)
- 4 세계시민캠프 중 모의 유네스코 총회 모습 (2015)
- 5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방문 (2016)
- 6 제5회 유네스코 키즈 세계시민캠프 (2017)





유네스코길 합창단 공연 (2013)
KUSA Chorus Sing for Peace on UNESCO Road(2013)

2013년 8월 15일, 유네스코학생회(KUSA) 합창단이 유네스코회관 앞 명동길(명예도로명 '유네스코길')에서 '역사를 기억하라! 새로운 평화를 향하여'를 주제로 공연을 펼쳤다. 이 공연은 유네스코회관을 배경으로 시민들에게 유네스코와 유네스코길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행사였다.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 60주년 기념 국제포럼 (2013)

International Forum for the 60th Anniversary of ASPnet (2013)

1953년 설립된 유네스코학교(ASPnet)는 10년마다 네트워크 창설 기념회의를 개최한다. 2013년 9월 아시아 최초로 한국 수원에서 열린 ASPnet 6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는 네트워크 국가조정관, 교사, 학생 등 60여 개국에서 300여 명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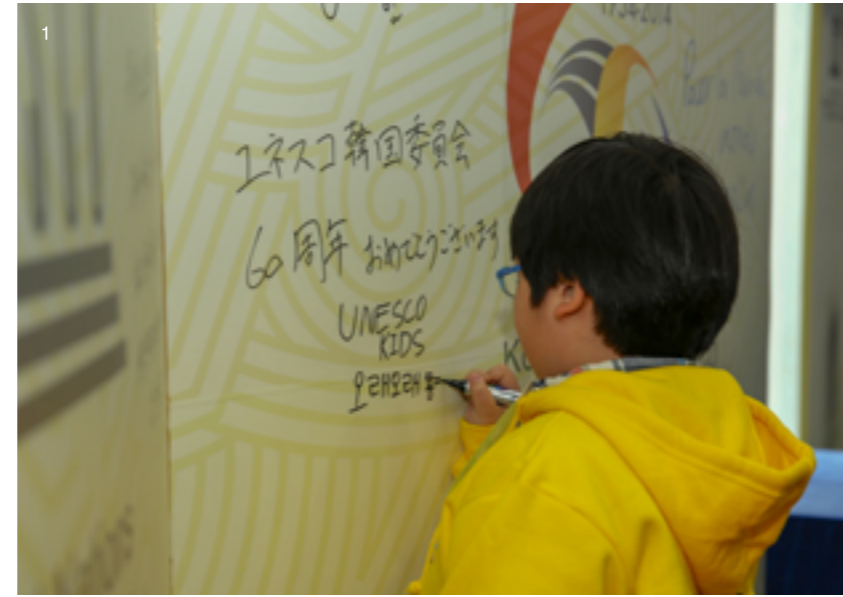
- 1 포럼 개막식 (2013)
- 2 분임토의 참가자 발표 (2013)
- 3 수원외고 방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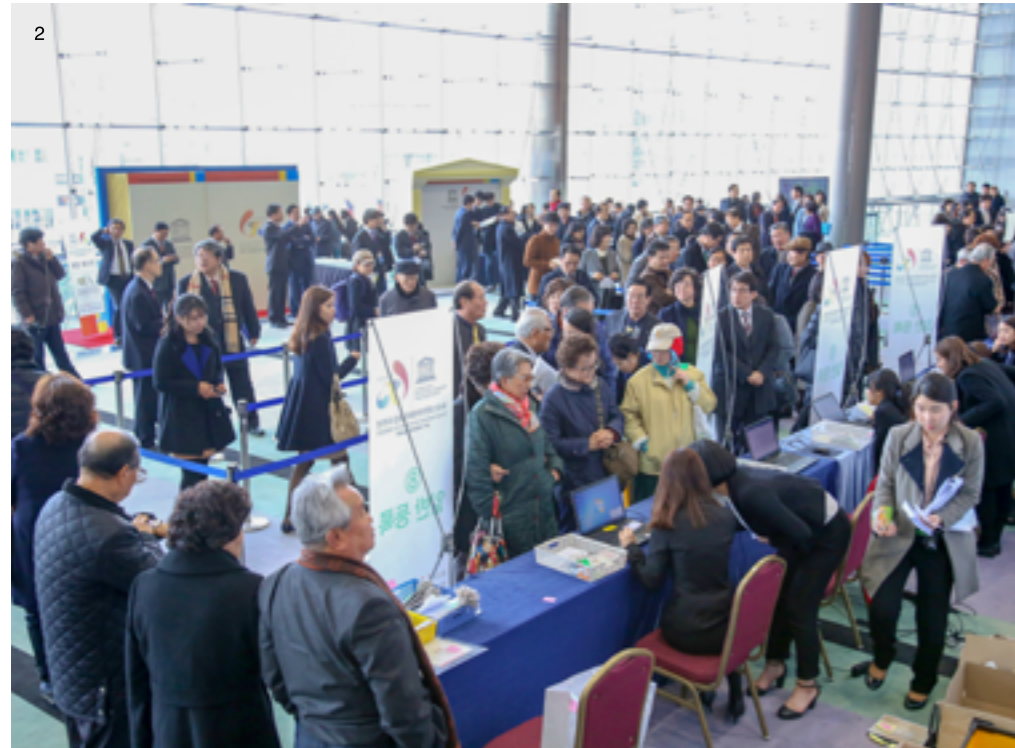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2014)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4)

2014년 2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60주년 기념 및 비전선포식이 열렸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신학용 국회 교문위원장 등 국회의원 11명, 중국, 일본, 태국 등 각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 28개국 주한 외교사절 등 내외빈 1,000여 명이 참석했다.



- 1 희망의 메시지를 적고 있는 유네스코 키즈 참가자
- 2 티켓을 발급받고 있는 사전등록 참석자들
- 3 부대행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6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
- 4 기념식을 지켜보고 있는 참가자들
- 5 축하떡을 컷팅하고 있는 내외빈





- 1 신세경 특별홍보대사 라디오 후원 CF 녹음 (2016)
- 2 삼성중학교 동아리 시그널의 후원금 전달식 (2016)
- 3 세계 문해의 날 기념 영화콘서트 (2017)
- 4 롯데호텔 기부금 전달식 (2017)
- 5 임형주 평화예술 친선대사와 함께하는 유네스코 일일나눔카페 (2015)
- 6 유네스코 희망팩토리 후원자 감사주간 행사 (2016)

후원개발사업 개시 (2014-)

Start of fundraising by KNCU (2014-)

유네스코는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국민학교 교과서 인쇄공장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초등교육 정상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는 이후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에 보답하고 교육을 통해 최빈국과 저개발국의 어린이와 성인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고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문해(literacy) 증진 사업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크게 강화하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한 후원개발 활동을 시작했다.





1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제1기 참가자들 (2014)
 2 제2기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현장견학 (2015)
 3 명동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에너지·기후변화 캠페인 (2017)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2014-2017)

UNESCO Climate Change Youth Frontier Initiative (2014-2017)

대학생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문적이면서 국제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4년간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계모어의 날 기념 포럼 (2018)

The Forum in Commemoration of 2018 UNESCO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 (2018)

유네스코는 인류가 가진 언어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사라져가는 모어를 보호하기 위해 2월 21일을 세계모어의 날(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로 지정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공동체의 문화와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언어'의 다양성과 소멸 위기에 처한 모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2018년 2월에 주한방글라데시대사관과 공동으로 '2018 세계모어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의 축사 (2018)
 2 참가자 단체사진 (2018)
 3 기념 심포지엄 (201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친선·홍보대사 (2013-)

Honorary and Goodwill Ambassadors of the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3-)

다양한 문화계 인사들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친선·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유네스코 이념과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1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 문화예술친선대사 위촉 (2013)
- 2 배우 신세경 특별홍보대사 위촉 (2014)
- 3 국악인 송소희 홍보대사 위촉 (2014)
- 4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양방언 평화예술홍보대사 위촉 (2014)
- 5 팝페라테너 임형주 평화예술친선대사 위촉 (2014)
- 6 배우 이영애 특별대사 위촉 (2015)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모두를 위한 평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써야 할 때 X표시를 하거나 지장을 찍습니다.
르완다에 사는 Nyiraneza(니라네자)씨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구촌교육나눔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이제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나눔 후원안내

전화문의 1800-9971

웹사이트 <http://www.unesco.or.kr/sponsorship>

후원계좌(예금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은행 1005-986-001117

국민은행 375301-04-106542

어제까지, 오늘부터

Until Yesterday, From Today

발행일	2018년 12월 개정판 발행(2014년 2월 3일 초판 발행)
발행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발행인	김광호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www.unesco.or.kr
문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문화본부 커뮤니케이션팀
전자우편	hckim@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PR/2014/BK/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